

연중 제 8 주일

기도서 P. 356 A해

제1독서(이 사 49, 14-15)
제2독서(고린전 4, 1-5)
복 음(마 태 6, 24-34)

숨 정이

발행처 전주교전주교구
편집사 목국
인쇄관 리국

편집실: 전주시서노송동560~6
전주 교구청
☎ ④ 2935 ③ 5098

□강론

「잇을 수 없는 분」

서 광 석 신부



“너희는 새보다 훨씬 귀하지 않느냐? 나는 결코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한동안 유행되었던 바 명사의 말에 가장 불쌍한 여인은 “잊혀진 여인”이라는 것이 있다. 왜 잊혀짐이 가장 불쌍한 것일까? 그것은 잊음이 무관심과 사랑의 관심을 버림을 뜻하기 때문이다.

잊어버림은 위험 중에 내버려짐, 버림받음과 직결되는 때 하느님이 인간을 잊으신다는 것은 인간에게는 구원의 손길로부터 버림받음을 의미한다. 거꾸로 인간이 하느님을 잊음은 하느님의 사랑을 배반하는 것이라고 성서는 가르친다. 이러한 잊음의 반대는 사랑이다. 동서고금의 문장들이 연인의 모습을 끝까지 잊어버리지 않는 사람으로서 묘사하지 않는가? 구약의 호세아서도 우리를 애뜻이 사랑하시는 하느님을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 너를 남에게 내어주겠느냐”라고 하시는 분으로 그리고있다.

잊을 수 없는 애뜻한 정이 사랑의 정을 지시하는 것인데, 오늘의 구약 독서는 절대로 우리를 잊지 않겠다고 약속하시는 하느님의 말씀을 전해준다. 그 말씀은 ‘여인이 자기의 젖먹이를 어찌 잊으랴! 어미는 후식 잊을지 몰라도 나는 결코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를 잊지 않고 사랑하시는 하느님은 이제 우리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사랑의 돌보심을 약속하신다. 그리고 우리도 하느님을 사랑하여 잊지 않고 먼저 찾으라고 하시는 것이다.

지극히 사랑하는 그것이 나에게서 없어진다면 그런 삶은 나에게 죽음이기에 나는 사랑하는 그것을 먼저 구해야 하지 않겠는가? 사랑하는 것은 먼저 얻어야 할 것이기에, 예수님은 ‘먼저 하느님의 나라를 구하라’고 말씀하신다. 사랑하는 사람은 다른 잡다한 것을 먼저 구하지 않고, 사랑하는 그분을 구한다. 예수님은 우리도 먼저 하느님의 나라를 찾으라고 하신다. 그러므로 오늘 복음은 의식주의 걱정을 말고 무위도식하라는 내용이 아니다. 인간을 살살이 돌보아 주시는 하느님의 사랑을 알려주고 우리로 하여금 하느님을 잊지 말고 먼저 찾으라고 하는 내용이다.

과연 나는 사랑하는 그 분을 나의 모든 것으로 여기고 그 분을 먼저 찾고 여타의 것은 단지 수단으로만 생각하며 살고 있는가?

사순절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의 수난을 묵상하는 때이다. 나는 그분을 잊지 않고, 모든 것으로 여기며, 먼저 찾으며 사랑하고 있는가?

(김계 천주교회 보좌신부)



부족함을 채우자

—사랑의 실천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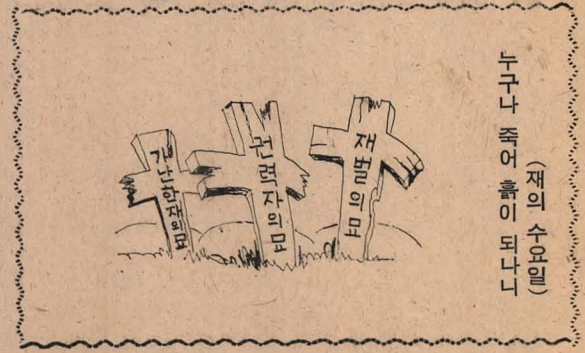
무슨 일이나 한도가 있다. 어느 정도를 벗어나면 탈이 나기 마련이다. 그래서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라도 너무나 먹어서는 안되는 법이다. '그렇다고 적게 먹다가, 먹어야 할 만큼을 못 먹게 되면 영양실조로 고생할 수밖에 없다. 지나쳐도 안되고, 모자라지도 안되는 것이다. 이러한 경지에 이른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른다. 먹고, 마시고, 게임을 즐기고, 성적인 기쁨을 얻고 하는 이 모든 일에 지나치지도 모자라지도 않게 한다는 일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소돔 지방의 사람들이 너무나 지나쳐서 타락의 극에 달했을 때, 하느님께서는 그들을 벌하시기로 작정했다. 이때에 아브라함은 소돔을 위해 하느님께 빌었다. “죄없는 사람 50명만 있다면 용서해 주시겠지요?”—“물론.”—“45명, 40명, 30명, 20명, 아니 10명만이라도 죄없는 사람이 있다면...”—“물론.” 그러나 불행히도, 그곳에는 롯의 가정뿐이었다. 그래서 결국, 롯의 일가만을 제외하고 유향불의 심판을 받고 말았다. 미련이 남았던 롯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고.

사순절이 시작된다. 자신을 되돌아 보는 이 때에, 아브라함과는 달리, 하느님께 자신을 위해 말씀드려 보자. “하느님, 내가 하는 일의 50%만이라도 당신의 뜻에 의합하다면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그것도 모자라면 “45%, 40%, 30%, 20%, 아니 10%라도 당신의 뜻에 합당하게 산다면 용서해 주시겠습니까?”라고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물어야 한다. 아니, 하느님께 묻기 보다는 자신에게 묻고, 부족함을 채우도록 힘써야 한다.

버림받고 고통받는 형제들을 위한 사랑의 실천, 교회 공동체 안에서 형제들과 함께 하는 좋은 일들에 적극 참여하여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야 한다. 바로 지금부터.

숨 정이 산책



□ 사순절 성금운동을 마무리 하며

사제없는 교회,
생각해 보았는가?

—마지막으로,
작년의 두배만큼만 정성을 모우자.

□ 사순절 성금운동을 마무리짓는 결단

최근의 몇년 동안, 우리 교구는 사순절이 닥치면 사제 양성 후원을 위한 헌금 운동을 해왔다. 그간 가난한 과부의 등전 한뼘들이 모아지기는 했으나, 날로 치솟는 물가나 형편없이 끈두박질치는 화폐 가치는 그 정성들을 무색하게 하고 말았다. 또한, 해마다 계속되는 이 좋은 사업이 염증을 느끼게도 했다. 그래서 금년에는 결단을 내리기로 했다. 사제 양성 후원을 위한 사순절 성금 운동은 금년으로 마무리를 짓기로 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좋은 운동의 가치를 낮게 평가하자는 것은 결코 아니다.

□ 그간의 일들

그간 여러분들이 모아주신 정성은 3천5백여만원에 달한다. 그 가운데서 2천만원은 부동산에 투자했다. 안전하게 화폐 가치를 증식시킬 수 있는 묘안도 궁리해 보았으나, 너무나 적은 액수라서 이리지도 저리지도 못하고, 다만 2천만원만 부동산에 투자하기로 한 것이다. 앞으로, 마지막 해인 금년에 목표하는 1천5백만원이 모아진다면 새로운 대책을 강구할 것이다.

화폐 가치의 증식을 연구하는 한편, 지난 3년간 사제 성소자들을 위한 교육에도 힘써왔다. 불과 20명 남짓한 청소년을 상대로 하는 교육이지만, 이 이상가는 성소 개발(啓發) 방법은 따로 없다.

그간 모아진 정성들을 수치로 밝혀 보면 이렇다.

• 후원 기금 :	9,697,533원
• 사순절 성금 :	1977년 4,454,922원
	1978년 5,562,766원
	1979년 8,193,335원
	1980년 7,767,759원
	계 35,676,315원

□ 당부의 말씀

한국 최초의 방인(邦人) 자치 교구라는 영광에 걸맞게 그간 우리 교구는 어려운 가운데서도 꾸준히 노력해 왔다. 많은 분들이 보여주시신 열정으로 사제 성소도 꾸준히 증가했다. 이제는 신학교에도 교수 신부를 들썩이나 파견하고, 외국에 있는 신자들을 위한 사목에도 세 신부를 파견했을 뿐 아니라, 인재 양성을 위해 프랑스와 로마에 일꾼 신부를 보내어 수학하게 하고 있다. 날로 번창하는 시대에 발맞추기 위해서는 부족함도 없지는 않으나, 이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인가!

교회가 이 시대의 등불이 되자면 더 많은 전문사제가 요청된다. 따라서 사제 성소는 날로 증가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 성소를 뒷받침하기 위한 대책도 따라야한다. 이 일은 세상마칠 때까지 계속되어야 할 일이 아닐 수 없다. 그간 벌여온 사순절 성금운동을 마무리짓는 이 마당에 교형 자매들의 최선의 정성을 당부할 뿐이다. 작년의 두배만큼의 정성을 모아 주면 된다.

날로 감소되는 사제 성소를 감안할 때, 사제없는 내일을 바라보는 일은 불을 보는 것만큼 명확한 일이다. 여기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의 중차대한 사명이 있다.

교회상식 ③

사 순 절(四旬節)

사순절(四旬節)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준비하기 위하여 예수께서 광야에서 기도하시며, 재(齋)를 지키시던 40일을 생각하며 회개(悔改)와 극기와 선행으로 재물 잘 지키는 시기를 말한다.

이 시기는 초대 교회부터 지켰으나, 니케아 공의회(A.D. 325)에서 지금처럼 기간이 정해졌고, 대 그레고리오(Gregorius Magnus) 교황때 40일로 결정되었다.

이 시기는 재의 수요일로부터 시작되며, 특히 모든 신자들에게 회개할 것을 강조한다. 즉, 이 시기는 회개의 시기, 보속(補贖)의 시기, 극기와 사랑의 시기이며, 또한 냉정한 자아(自我) 반성의 시기이며, 자신을 배푸는 사랑의 실천 시기이다.

그래서 교회는 재의 수요일과 예수 수난 금요일에 단식(斷食)(만 21세~60세) 재의 수요일과 사순절 매 금요일에 금육을(만 14세부터) 지키기를 명하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사순절의 전례는 미사때 사제의 재의는 자색(보라색)으로 바뀌며, 우리가 계속하던 “알렐루야” “대영광송”도 하지 않게 된다. (김기수 신부)

재단 산하 학교(성심·해성 중고교)
교직원 인사 발령

본 교구재단에서는 교구에서 운영하는 성심중·고교와 해성중·고교 교직원에게 재단공문 제 호에 의거 3월 1일부터 아래와 같이 인사 발령을 단행했다.

양 학교의 더욱 큰 발전을 기원하사.

—아 래—

1. 교장 발령

이상용 : (연) 해성고등학교장, (명) 성심여자중학교장
천 건 : (연) 성심여자중학교장, (명) 해성고등학교장

2. 교원 발령

황현도, 김용환, 박은중, 이희창, 김성록, 유계인(6명)
(연) 해성고등학교 교사
(명) 해성중학교 교사
김중진, 이월집, 임한전, 김창현, 한상갑(5명)
(연) 해성중학교 교사
(명) 해성고등학교 교사

※ 기사가 넘쳐 「들들귀」 금주 습니다 <편집실>

- 표 구 일 절
- 서 화 매 매

원 표 구 사

진주시 중앙동 1가 48
(다가동 파출소 앞)
윤 병 훈(아오스님)
전화 ② 6445

“사순절, 40일간의 기도”

제4지구는 사순절을 맞이해서 40일동안 속죄의 기도를 치명자 산에서 바치기로 했습니다. 전주 시내 신부님들이 매일 새벽 6시에 산상(山上)미사를 봉헌하고, 그날의 미사 지향에 따라 우리의 기도를 바칩니다. 신자분들의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미 사 시 간—

- 첫날(제의 수요일) : 오후 2시 합동(주교님 집전)
- 마지막 날(성지주일 전 토요일) : 오후 3시(주교님 집전)
- 그 외 : 매일 새벽 6시(일요일은 없음)

미사지향

- 사순 제1주일 : 시성 시복을 위해서
- 사순 제2주일 : 병답자들의 회두를 위해서
- 사순 제3주일 : 신체 부자유 아동을 위해서
- 사순 제4주일 : 속죄와 개인성화를 위해서
- 사순 제5주일 :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교구 정평위 정기 총회」

정의 평화 위원회는 지난 2월 20일 오후에 교구청 회의실에서 주교님을 모신 가운데, 19명의 위원들이 모여 지난 한해 동안을 돌이켜 보면서 각 분과별 활동을 보고하고, 새로운 활동방향을 모색했다. 또한 2년 임기를 마치게 되는 회장단의 선거와 새위원을 보장 위촉했는데, 회장단에는 김봉희 신부와 조성호씨(평협 회장)가 유일하게 왔고, 그의 간사 엄기봉 신부(해성 중교감), 감사에 김병운 신부(신태인 주임)가 선출됐으며, 새 위원에는 박인호 신부, 최영자 수녀(성가회), 김종신 수녀(말씀의 시녀회), 양상렬(병호사), 이종두(의사), 이주철(사목국 홍보주임), 이철순(J·O·C회원)이 추가 위촉됐다.

따라서 교구 정의 평화 위원회는 총 31명(신부 13명, 수녀 6명, 평신도 12명)으로 구성된 셈이다. 정의와 평화를 위한 많은 일들이 주님 뜻대로 이루어지길 바란다.

평협 사무실 이전

교구 평협은 제 단체와의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선교활동의 원활을 기하고자, 가톨릭 센터 3층 회의실 옆으로 평협 사무실을 이전했다. 많은 분들이 내방하여 그리스도께서 각자에게 부여하신 복음전파의 사명을 다하기 위한 대화의 열기가 가득찬 곳이 되었으면 한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상주(常任) 직원이 없는 것이다. 그런 때가 빨리 오기를 서로 노력하면서 평협과의 제 관계는 사목국의 홍보주임에게 우선 연락주시기 바란다.

독신 여성 피정

교구에서는 3월 7·8일에 미혼여성을 위한 피정을 실시한다. 특별한 지향과 선의의 목적, 이상을 품고 봉사적 삶을 이어가는 동정녀, 주님과 이웃, 교회를 위해 헌신하려는 독신 직장 여성들을 한자리에 모아 보람스런 생활을 꾸려나가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모처럼 교구의 뜻이 담긴 이 피정에 26세~50세 미혼 여성의 많은 참석을 바란다.

※ 숲정이 편집 공고

1. 원고 접수 기한 : 모든 원고는 1주일 전까지, 단 본당은 화요일까지 접수받을 수 있도록(월요일에 발송)하며,
2. 각 본당의 공지사항은 원고지 2매, 일반 소식 미담 등은 3~4매로 하시고,
3. 꼭 원고지를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 용 탕」

보신 보양 고단위 영양식품
각종 난치병에 효과가 좋음

군산 토용탕(한일은행 뒤)

전화 ③ 1636

전주 전동 대건다방

전화 ② 9740

유 석 증(스페파노)

신비의 토롱 진액 회소식

대학 교수진에 의하여 개발한 토롱
진액과 초밀란(버어몬트)

가격 : 토용탕 4,000

초밀란 4,000

전 주 토 롱 썬 타

구 성모병원 3층 322호실

전화 ② 2301 오 예 환(바오로)

요심이 (395) 리병오



□ 생화 · 각종화분 · 신부부케
교우분들, 자주 들려주세요

진 선 미 꽃 집

전주극장 골목 전화 ②2628

범띠또(떡배) · 이 마리아

동양 매듭

◆ 실내 장식용 벽걸이

◆ 혼수용 노리개 종류

환 <개인 지도> 영

전북은행 본점 후문 앞

7광구 다방 입구

미라 고전 매듭실

제 4 지구 각 분당 소식

공지사항

1. 분당 부녀 대표자 연수: 2일~3일
2. 공소 부녀 대표자 연수: 5일~6일
※ 지역 교회 안에 도움을 주는 선교세미나에 관심과 성원을 바랍니다.
3. 제 2 지구 교리교사 연합회 모임: 일시-3월 7일<토> 오후 5시, 장소-오룡동 천주교회
4. 신용조합 임직원 연수회: 13<금> 오후 2시~14일<토> 오후 2시, 가톨릭센터
※ 단위조합의 임원, 실무 책임자의 빠짐없는 참여 바람(주후 공문 발송)

(중앙)

전화 ③3651
3874

주임 신부 문 정 현
보좌 신부 유 종 환
보좌 신부 박 인 병
사도 회장 김 박 구

1. 사도회 임원회의: 3월 7일 오후 7시
 2. 프란치스코 3회: 오후 2시 강당
 3. 성심부녀회: 6일<금> 어머니미사 후
 4. 고등학생 임원교제식: 학생미사 후
 5. 가정방문: 3월 3일 9시 30분부터 진북동·중노송동
3월 10일 9시 30분부터 서노1~2·태평1~2
 6. 재의 수요일: ① 3월 4일 아침·저녁 미사에 “재”를 받아 속죄하여 부활을 준비합니다
② 재의 수요일은 금육과 단식제를 지키어 그 희생을 다음주일에 봉헌합니다
③ 사순절동안 매 금요일 미사후 “십자가의 길”을 합니다
④ 4년에 받아가신 성지가지를 3월 3일까지 사무실에 가져 오십시오
 7. 신자교육
① 79년도 영세자 만남과 교육
3월 10~12일-7시 30분 강당
② 분당 각 신심단체 및 성인
3월 17일~19일 7시 30분 강당
③ 학생(중·고·대) 3월 24~26일 7시 30분 강당
 8. 중앙신용조합 제 8 차 정기총회: 3월 5일<목> 분당
 9. 제 4 전 모임: 대상-유치부에서 국민학교 6학년까지
3월 7일 오후 3시-중앙성당
- 지난주 봉헌금: 391,540원

(노송동)

전화 ②7032

주임 신부 김 나 박
보좌 신부 박 준 근
사도 회장 박 준 근

1. 재의 수요일(4일) 행사: 이날 각 미사에 재 축성예식 있습니다. 단식과 금육제를 지켜 부활축제를 준비합니다
 2. 외부강사 초빙: 다음주(8일) 각 미사에 김진영 목사님께서 설교합니다.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3. 형제회 월례회: 공식미사 후
 4. 지난주에 예비자 봉헌: 6명, 예비자를 안내하신 분들은 계속하여 교리반에 모시고 나오세요
 5. 금주의 성경읽기: 구약의 레위기 전체, 당신은 한번이라도 신·구약의 성경을 끝까지 읽으셨습니까?
 6. 성령기도회: 매주<금> 오후 2시~4시까지
- 지난주 봉헌금: 254,963원

(덕진)

전화 ②2182

주임 신부 서 석 기
보좌 신부 유 영 도
사도 회장 양 삼 열

1. 사도회 월례회: 구역장, 반장, 공소회장, 임원
 2. 주일학교: 교리 2시, 미사 3시
 3. 예비자 인도: 교리지도-보좌신부, 주일 공식미사후
 4. 주일 미사안내: ① 오전 6시 30분, ② 학생 9시, ③ 공식 10시 30분, ④ 오후 주일학교 3시, ⑤ 젊은이 7시
 5. 애령회 비품기증: 보좌신부(향로), 김용식(가운), 진북회(11,000원), 사무장(성수채)
 6. 아가씨회 발족: 수고하시겠습니까
- 지난주 봉헌금: 386,835원

(북자)

전화 ②5238

주임 신부 김 종 택
보좌 신부 김 희 남
사도 회장 조 성 호

- ※ 3월은 성요셉 성월
1. 첫 절례 7: 3월 7일<토> 저녁미사
 2. 재의 수요일: 3월 4일 단식과 금육
 3. 축! 분당신부 영명축일: 19일 많은 기도 협조 바람
 5. 성우회 월례회: 다음주일 공식미사 후

(조성호, 박흥기 형제)

6. 복자부녀회: 3월 2일 어머니미사 후
 7. 분당 부녀회 대표자 연수회: 3월 2~3일 2명
 8. 독신여 피정: 3월 7~8일 미혼여성(26세~50세)
 9. LM 간부 1차세미나: 3시 (분당 프레시디움 간부)
- 지난주 봉헌금: 372,040원

(서학동)

전화 ②2276

주임 신부 김 병 환
사도 회장 한 형 수

1. 사도회 월례회: 공식미사 후(상임위원님들 포함)
 2. 재의 수요일 예식: 저녁 7시
 3. 반장님 월례회: 다음주 공식미사 후
 4. 십자가의 길: 사순절 기간동안 매주 금요일 저녁미사 후(합동으로)
 5. 가정방문: 다음 주일부터 실시 (새로 오신분 사무실에 한번 들려 주세요)
 6. 다음주 전례담당
독서-① 박장춘 ② 김합기, 신자들의 기도-김광수
- 지난주 봉헌금: 157,605원 교무금: 111,600원

(숲정리)

전화 ③7366

주임 신부 이 대 권
사도 회장 이 강 노

1. 거년도 성지가지를 3월 3일까지 사무실에 내주세요
2. 사도회 월례회: 3월 1일<일> 공식미사 후
3. 요안회 월례회: 3월 1일<일> 김남곤 신형 총무백
4. 재의 수요일: 3월 4일 금육과 단식
5. 누갈다 부녀회: 3월 7일 첫 토요일
6. 예비자교리 시간안내: 매주 공식미사 후
수요일 오후 7시
7. 사도회임원 가정방문지역: 진북1동, 금암동, 태평동
8. 다음주 전례담당: 해설-이철수
독서-채희산·황현도, 기도-김경주
9. 신축기금 내주신 분: 중앙성당 김병구(10만원)

(전동)

전화 ③3222

주임 신부 김 병 역
보좌 신부 박 병 준
사도 회장 이 종 두

1. 유아세례: 9시미사 후
 2. 사도회: 공식미사 후
 3. 가시는 수녀: 홍수녀님(강원도 춘천)감사합니다
오시는 수녀: 마리안나 수녀님 수고하시겠습니다
 4. 작년에 받은 성지가지를 3월 3일까지 사무실로 가져오세요
 5. 재의 수요일(3월4일): 아침 저녁미사중 재의 예식-단식과 금육의 날
 6. 미사시간 변경
학생미사: 토요일 오후 5시→주일 9시로
어린이미사→주일 오전 9시→주일 오후 3시
(오후 2시에 교리)
 7. 다음주 전례담당
아침미사: 해설-박종구, 독서-① 이주영 ② 최병래
공식미사: 해설-이준영, 독서-① 이덕수 ② 고수창
저녁미사: 해설-경양수, 독서-① 이승호 ② 이진홍
- 지난주 봉헌금: 466,530원

(파티마)

전화 ②0915

주임 신부 김 영 일
사도회장 채 수 려

1. 사도회 월례회: 오늘 저녁미사 후
 2. 성모기사회: 토요일 오후 1시 30분
 3. 공식 “십자가의 길” 기도: 사순절 매 공식미사 후
 4. 금주전례: 독서-① 송엘리사벳 ② 유벨라니아
기도-신안젤라, 유소피아, 김말다, 박아나다시아
 5. 수녀원 신축헌금 하신 분: 조창령(40,000원), 윤아지(5,000원)
- 지난주 봉헌금: 118,840원 어린이헌금: 2,900원